

# 회원만 PB제품 독점 공급... 약국체인 '불공정' 논란

### 온누리·메디팜·참약사 330만~700만 원 가입비 받고 특허 건기식과 달걀 일반 약은 독점유통 금지... 위법 논란 거세

약국 체인점을 운영하는 본사가 자체 브랜드(PB) 제품을 회원 약국에만 독점 공급하는 것은 소비자 선택권 제한과 불공정 거래라는 지적과 함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본지가 약국 체인점을 조사한 결과 국내 주요 약국 체인 본사들은 PB 제품을 생산해 가맹 약국에만 독점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온누리H&C(온누리약국), 메디팜, 참약사 등 대형 약국 체인들은 공통적으로 PB 제품을 회원 약국에만 판매한다. PB 제품은 일반의약품부터 건강기능식품까지 다양하지만 비회원 약국에서는 취급이 불가능하다.

온누리약국의 경우 가맹점이라 하더라도 회원비를 납부하고 간판을 교체해야만 PB 제품을 취급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제각각이다. 본지가 취재한 결과 온누리약국과 가맹 계약을 맺었음에도 간판은 온누리약국으로 바꾸지 않고 온누리 PB 제품을 판매하는 약국도 있었다.

온누리 본사 측은 350여개의 PB 제품을 통해 약사들에게 상품 차별화와 고객에게 온누리약국만의 특별한 건강의 가치를 제공한다고 설명하지만 사실상 독점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온누리약국의 PB 제품을 약국 판매대에 올려놓으려면 회원 가입비 400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



체인약국 본사가 개발한 자체브랜드 상품이 독점 공급되고 있어 논란성이 제기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메디팜은 초기 가입비 330만 원을 일시금으로 받고 PB 제품을 회원 약국에만 제공하고 있다. 다만 메디팜 측은 "PB 제품이라고 해도 상당수는 건강기능식품이어서 일반 약국에서도 일부 판매된다"면서 유연성을 강조했다.

참약사의 경우 회원 가입비가 총 700만 원(약사회원 200만 원·약국회원 500만 원)에 달한다. 신규 개국이나 분가, 가족·양수도 등 특정 조건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의 할인이 적용되지만 여전히 진입장벽이 높은 편이다. PB 제품 역시 회원 약국에만 독점 공급된다.

제약 유통업체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은 법적 제약이 크지 않아 PB 확대가 가능하지만 일반의약품은 약사법상 독점 유통

이 금지돼 있다"며 "체인 본사의 운영 방식이 법적 해석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약사회는 "전체 차원의 공식 입장을 내기는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개별 회원 약국들의 선택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의견을 모으기 쉽지 않다는 의미다. [heosa@skyedaily.com](mailto:heosa@skyedaily.com)

### 백신 자급률 27.3% 작년 해외 백신 구매 2600억 원 넘게 지출



국가필수예방접종(NIP) 백신 자급률이 10년째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미나기자

국가필수예방접종(NIP) 백신 자급률이 10년째 30%에도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에만 해외 백신 구매에 2600억 원 넘는 금액이 지출됐다. 국회와 전문가들은 백신-의약품 공급 불안정 우려에 대해 입을 모으고 있다.

14일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NIP 대상 22종 백신 가운데 국내에서 생산되는 백신은 6종(27.3%)에 불과하다. 나머지 16종(72.7%)은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필수 백신 구매 예산 3661억 원 중 약 2627억 원이 해외 백신 구입비로 지출됐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백신 공급 관리는 단순한 보건 문제를 넘어 국가 안보 차원의 과제가 됐다"며 "10년째 30% 미만 수준에 머물고 있는 백신 자급률을 끌어올려야 하는데 정부가 너무 소극적이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지난달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신 자급률 목표치를 묻는 질의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구체적인 수치는 말하기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자급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heosa@skyedaily.com](mailto:heosa@skyedaily.com)

## 명인제약, 10월 코스피 상장... 340만 주 배정

### 18일 공모 개시... 공모자금 1530억 원 시설·신약개발 투자

명인제약이 다음 달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앞두고 있다. 청약은 18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며 대표 주관사는 KB증권이다.

최근 명인제약이 공시한 투자설명서에 따르면 공모는 전량 신주 모집으로 진행되며 총 340만 주가 일반에 배정된다. 희망 공모가 밴드는 주당 4만5000원에서 5만8000원으로 설정됐으며, 밴드 하단 기준 공모자금은 1530억 원에 달한다. 최종 공모가는 9월 9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 기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해 결정된다.

조달된 자금은 발안 제2공장 고형제동 증축, 팔탄 제1공장 생산설비 증설 등 시설확충에 1085억 원, 연구개발 등 운영자금으로 424억 원이 투입된다. 명인제약은 이를 통해 연간 약 6억 캡슐의 생산 능력과 기존 대비 3배 수준의 펠렛 설비 확보를 계획하고 있다.

회사 측은 특히 펠렛 제형 완제의약품 생산기술 이전 및 조현병 신약 이브나미드(Evenamide)의 글로벌 임상 3상에 자금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이브나미드는 현재 명인제약이 국내 독점 라이선스를 확보하고 있으며, 파킨슨병 개량신약



명인제약이 코스피 상장을 앞두고 있다. 청약은 18일부터 진행된다. 명인제약

‘팍스로아캡슐’도 9월 중에 품목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명인제약은 정신신경용제 중심의 제네릭 의약품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치매·파킨슨·뇌전증·조현병·우울증·수면장애 치료제에 특화된 치료군을 보유하고 있다. 일반의약품 시장에서는 ‘이가탄’ ‘메이퀸 Q’ 등으로 브랜드 인지도를 확보했다. 제형 기술 측면에서는 펠렛 서방화 기술, 가용화 기술, 복합제 및 속방성 제형 개발을 기반으로 기술 우위를 주장하고 있다.

생산 시설은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과 향남읍에 각각 위치한 제1·제2공장에서 가동 중이다. 이 중 제2공장은 2019년 GMP(우수 의약품제조관리기준) 승인을 받았다.

[gju@skyedaily.com](mailto:gju@skyedaily.com)

## 공부 잘하는 약?... 청소년 ADHD약 ‘오남용’

### 19세 이하 환자 335만9226건 처방

### 부작용 278건 중 절반 이상 청소년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가 ‘공부 잘하는 약’이라고 불리며 청소년 사이에서 처방량이 증가하고 있어 오남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만 19세 이하 환자에게 처방된 ADHD 치료제는 총 335만9226건에 달했다. 2024년에만 19세 이하 환자에게 136만7730건 처방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치료 목적의 급여 처방 기준으로 1년 전보다 21.9%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보고된 부작용은 총 278건이다. 가운데 연령 정보가 확인된 83건 중 19세 미만 환자의 사례는 56.6%(47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주요 증상은 △식욕 감소(49건) △불면(30건) △구역 및 구토(21건) △두근거림(12건) △자극과민성(7건) △티(7건) △두통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만 19세 이하 환자에게 처방된 ADHD 치료제는 총 335만9226건에 달했다. 게티이미지뱅크

(5건) △어지러움(5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처방 환자의 특성을 보면 남성 78.6%, 여성 26.8%로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많았고 지역별로는 서울(25.4%)과 경기(25.2%)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됐다.

ADHD 치료제는 원래 ADHD 환자의 증상 약화를 위해 사용되지만 집중력 향

상과 학업 성취 효과가 알려지면서 일반 청소년과 성인들 사이에서도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 오남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 성장호르몬제의 부작용 사례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년~2025년 6월) 총 4312건의 부작용이 보고됐다. 주요 증상은 주사 부위 통증, 출혈, 타박상, 종창, 발열 등이다.

이 가운데 연령 정보가 확인된 1281건 중 19세 미만 환자가 1266건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이른바 ‘키 크는 주사’로 불리며 오남용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강조된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DHD 치료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처방이 늘어나는 만큼 필요한 환자들이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특히 마약류 약물의 오남용을 줄이고 국민이 안전하게 처방받을 수 있도록 약물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heosa@skyedaily.com](mailto:heosa@skyedaily.com)



# Inhancer Plus™

## 관절영양제의 혁명

# 인한서 플러스

글루코사민 + 콘드로이틴 + MSM + 브로멜라인 + 레시틴



오프라인 전용



온라인 전용

관절 관리는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